



고양하천네트워크

[2020 고양시 하천 친구들]

조류편 3



수리부엉이

-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조류. 천연기념물
-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하여 새벽 해뜰 무렵까지 활동한다.
- 낮게 파도 모양으로 날며, 밤에는 하늘 높이 떠서 바위산을 오가기도 한다.
- 한국에서는 비교적 드문 텃새이며, 숲보다는 바위가 많은 바위산에 산다.



왜가리

- 황새목 왜가리과의 조류
- 못, 습지, 논, 개울 등지의 물가에서 단독 또는 2-3마리씩 작은 무리를 지어 행동한다.
- 날 때는 목을 S자 모양으로 굽히고 다리는 꼬지 바깥쪽 뒤로 뻗는다.
- 수컷은 둥지 재료를 나르고 암컷이 둥지를 튼다.
- 먹이는 어류를 비롯하여 개구리, 뱀, 들쥐, 작은새, 새우, 곤충 등 다양하다.



중대백로

- 황새목 왜가리과의 조류
- 번식기 이외에는 땅 위에서 생활하고 논, 개울, 하천, 습지 등 물가를 걸어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.
- 물고기, 개구리, 올챙이, 들쥐, 새우, 가재, 수생곤충 등을 먹는다.
- 여러가지 나무가 자라는 숲 또는 소나무, 참나무 등 키가 높은 나무에 집을 짓고 알을 낳는다.



황로

- 황새목 왜가리과의 조류
- 북한 중부와 그 이남에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한 종
- 팽나무 등의 높은 나뭇가지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접시 모양 둥지를 튼다.
- 습지나 목초지, 습지 주변의 숲 등에서 서식한다.
- 먹이 : 곤충류, 개구리, 파충류, 어류, 갑각류(새우), 설치류 등



흰뺨검둥오리

- 기러기목 오리과의 조류
- 호수나 못, 습지, 간척지, 논, 하천 등 평지의 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
- 초지에서는 쉽게 날아오르지 않지만
탁트인 호수나 바다에서는 청둥오리보다 사람을 피해 날아간다.
- 수초의 잎, 줄기, 새싹, 풀씨, 열매를 먹고
곤충류, 무척추동물 등의 동물성 먹이도 잡아먹는다.

모니터링 참여

고양자연생태연구회
더불어에코밴드
어린이식물연구회
에코코리아
하천생태동아리

2020년 고양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.



고양하천네트워크